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 찬반 갈등

화원면 이장단 투표 포기 주민투표 건의

주민 300여명 '위원회' 결성 반대 활동

복합 화력발전소 유치<**광주일보** 2011년 12월 12일 10면>를 두고 해남군 화원면 주민들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화원면 이장단이 2일 유치문제와 관련한 찬반 투표를 포기했다.

이날 화원면 이장들은 화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회의를 갖고 화력발전소 유치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이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수 있다며 투표를 포기하고 찬반 성향에 따라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날 화원면 이장 43명중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당초 찬반 결정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장단은 무기명·유기명 투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 투표를 포기하고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논의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또 이장단은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화원 면민 주민투표를 군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 등이 있는 만큼 주민과 회사측의 원만한 합의나 동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군 차원의 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 역시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 등을 견학했으며 이장단 투표결정에 따라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투표가 무산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 측은 "그동안 원만한 주민동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지 못했으나 이제는 찬반 위원회로 분명히 나눠진만큼 조직적으로 강력히 유치 활동을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반대 주민들도 지난 1일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 반대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화력발전소 투자회사인 MPC코리아 홀딩스 측은 이장단 찬반투표 무산에 대해 '이장들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일내에 화원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PC코리아 홀딩스 측은 "향후 간접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세대당 직접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밝히겠다"며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이 어려운 만큼 주민동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국적 회사인 MPC코리아 홀딩스는 해남군 화원면 일대 250만㎡ 부지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유연탄 및 LNG 복합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남도 자연재난대비 전국 16개 시·도중 최우수

전남도가 2011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기관 포상을 받는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평가는 매년 소방방재청과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 체계, 분야별 대응계획, 민관군 협력실태 등 총 14개 분야 3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 지자체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한파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재난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새얼굴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성공 마무리"

안순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정도·창조·감성경영의 CEO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공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하는데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안순섭(54)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영산강 3·4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장흥 출신인 안 단장은 지난 1983년 공사에 입사해 영산강사업단 공무팀장, 장성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정원박람회 현장 시무식 순천시는 내년 4월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2일 정원박람회 현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날 시무식은 해피데이 손수건 전달과 기부금 전달,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는 박람회장 현장밟기 등 정원박람회 성공다짐 행사로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장성경찰서 교통사고 예방 법규 준수 캠페인

장성경찰서(서장 이 윤)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40명과 2일 장성읍 중앙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서장과 과장, 파출소장들이 충혼탑 참배를 마치고 모두 참여한 가운데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윤서장은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장성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 김종식 완도군수

"해양생물 산업 미래 성장동력 육성"

2014년 해조류박람회 만전

170억원 투입 식수난 해소

신지면에 웃음 테마촌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희망찬 완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해에는 완도의 가치와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가능한 토양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해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진년(壬辰年) 새해에는 창조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해양생물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해양생물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양생물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오는 2014년 '국제 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준공을 앞둔 전복 연구소와 해조류 연구소를 통해 생산기반을 구축, 전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경영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장보고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등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 개최와 전지 훈련팀을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나간다.

김 군수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개선과 지속적인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성원과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를 상반기중에 완전 개통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보이고 있는 신지~고금, 노화~소안 연도교 가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다.

특히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180억원을 투자해 도서지역의 소득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해 170억원을 들여 상수원 개발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김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해양관광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완도만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된 슬로시티 청산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숙박·음식·교통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등 육지권에서 제주가는 가장 빠른 뱃길이 열린 초고속 카페리 '한일 블루나래호'(3300여t급)의 취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정기 운항 예정인 '한일 블루나래호'는 여객 572명과 차량 84대를 싣고 34노트의 속력으로 운행, 제주까지 육지권에서 가장 빠른 1시간40분대에 주파한다.

이와 함께 '빙그레 웃는 섬' 완도(莞島)의 매력을 웃음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신지면에 '웃음 테마촌'을 조성해 활기있고 생동감 넘치는 웃음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 시대가 개발과 성장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함께 군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창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완도의 미래와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개발

전남농기원 원예연구소…기름값·노동력 절감

고유가 시대에 시설하우스 기름값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보온덮개 자동개폐기가 개발됐다. <사진>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최근 동절기 애호박 등 시설하우스 작물의 재배를 돕는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개발했다.

애호박의 경우 겨울철 자랄 수 있는 최저온도가 12도로 상당이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에 농가들이 겨울철 재배를 꺼려 상대적으로 애호박 가격이 매년 겨울철이면 높게 형성돼 고소득 작목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높은 기름값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농가에서 현장 실증한 결과 외부온도가 영하 7도로 떨어져도 온실 내부는 6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호박이 생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비닐하우스 개폐에 필요한 노동력이 1000㎡(300평)에 1시간 걸리던 것을 6분으로 단축시켜 난방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다.

/송기동기자 song@